

唯心論에 대한 一考察(完)

엘리엇

此外에도 오히려 大概의 形而上學的인 學說이 同一한 方面으로 나타나있다. 例하면 한스·그러-슈는 엔테카-라 名하는 不可思議인 物과 此를 助하는 사이코이드라 名하는 비덤 不可思議한 物로서 有機物의 發達를 說明하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同一한 目的을 爲하여 「生命에네루기-」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實體」와 「絶對」와는 形而上學者의 크고도 有力한 學派의 탐탁해하는 創造物이다. 要컨대 想像的인 實在의 創造는 誘惑的인 「說明」方法이어서 아마 오히려 長久한 동안 無分別한 사람들을 잘못 引導할 것이다.

그런데 是等의 心靈的인 實在의 모든 것에 通한 特徵은 그것이 物質的인 屬性을 持한 것으로 하지 않는 限에는 認知할 수 업는 일이다. 그래서 種種의 物質的인 性質을 모조리 棄去해버리면 是等의 心靈的인 實在나 此에 對한 信仰도 即時 消滅해버린다. 何故오하면 吾人이 本章에서 屢屢히 陳述한 바와 갓티 信仰도 또한 其他의 精神狀態와 갓티 感覺과 聯合과의 所産임으로써이다. 眞實한 感覺이라거나 想像上의 感覺이라거나 적어도 感覺의 存在치 안은 곳에는 如何한 信仰도 업다. 萬若心靈이 볼 수도 업고 만질 수도 업고 分制할 수도 업고 空間에 對한 位置도 업고 其他 如何한 性質도 업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아모것도 업는 것과 맞찬가지다. 心靈을 認知하고 又是 心靈을 信하기 爲하여야는 어느 程度까지 이것을 物質化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래서 心靈은 空間에 位置를 占한 것으로 생각되야 例하면 球狀과 갓다는 엇던 漠然히 總括한 形態를 持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光과 音を 發하며 又是 體를 動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其他 여러 가지로 純粹한 物質的인 屬性을 持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要컨대 心靈은 物質的인 平面을 睨나서는 認識할 수 업는 것이다. 心靈이란 名稱은 無를 意味하거나 그리치 안으면 엇던 物質的인 性質을 意味한 것이다. 心靈이란 것이 存在하다고 하는 그것이 心靈은 純粹히 物質的인 特質을 具備한 것이라고 認定함을 意味한 것이다. 그래서 心靈이 物質的인 特質을 具備하는 限에는 그것

은 自然的 事象의 唯物論的 配列表에 編入되어 있는 것이다.

於是平 精神論은 徹頭徹尾 誤認인 것이다. 그래서 吾人은 精神論을 埋葬함과 同時에 普通으로는 精神論과 結着되지 안은 其他 種種의 信仰까지도 一切로 埋葬하라한다. 例하면 古代 찌리샤의 形而上學的인 唯物論까지도 吾人은 其中에 包含코져한다. 왜 그러냐 하면 彼 等の 唯物論은 我 等の 唯物論과는 非常히 相異한 것인 까닭이다. 彼 等은 靈魂의 存在는 許容해두고 다만 靈魂은 物質로 되어 있다고 主張하는 바가 精神論者와 다를뿐이다. 彼 等の 哲學的에는 同時代의 精神論者보다도 훨씬 進歩한 것은事實이다. 왜 그러냐 하면 彼 等の 唯物論的인 見解는 極히 顯著하게 近代의 見解를 先見한 것인 까닭이다. 그래서 今日의 科學的 唯物論은 彼 等の 一般的인 見解를 保存하고 그리고도 그의 形而上學을 棄去할 것이다. 萬一 肉體와關聯한 第二의 實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必然히 物質的인 物體가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點에서는 吾人은 새모크리자스와 一致한다. 그러치만 吾人은 如斯한 實在의 存在를 全然히 否定하는 바이다.

靈魂이나 心靈 等の 起源 如何라는 問題는 心理學的 方面에서나 社會學的 方面에서도 解決이 보이고 幾多의 學說이 提出되었으나 그것은 非常한 論爭的의 題目이어서 여기서는 言及할 틈이 없다. 只今 吾人이 말하라는것은 이 觀念의 起原이 아니라 이 觀念이 한 個의 迷信이라는 事實이다. 모든 種類의 모든 存在는 形而下學에 依하여 說明된 바의 唯物論的인配列表의 一部를 成한것이다. 그래서 이 配列表 以外에 何等의 存在가 있다는 主張은 到底히 理解할 수 업 는辨明으로서 觀念의 領域에 그에 相當한 것을 隨伴치 안은 맘이다. 그리고 그것은 言語上에서는 否認되어 있는 物質的인 屬性을 暗默 中에 준것 뿐으로 비로소 意味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狹隘」로서 「滿足을 與치 못하는」自然의 說明이고, 그것은 一切의 物을 機械的인 體系 中으로 처 박는 것이어서 生命과 自然에서 緊要한 靈魂을 逐出해 버린다-唯物論에 對한 批評은 大概는 이 方向을 取하는 것이나 이것은 本書의 主題에는 下等의 關係가 無한 것임으로 나에게는 이 批評에 答하는데는 큰 興味가 없다. 나는 唯物論의 敎義가 事實인 것을 明白히하라고 努力하였다. 卞라서 그것이 狹隘함인지 狹隘치 안음인지 滿足을 與하는지 滿足을 與치 못하는지는 나에게 對하여서는 아모러터래도 關係치 안타 그것은 全然 相異한 原以上에서 (立)서 論議할 全然 相異한 性質의 問題이다. 又況 이 批評 中에는 나는 罌粟粒만큼의 正確도 認定할수가없다. 吾人은 그의 藝術과 그의 道德과 그의 美와 醜와 그의 善과 惡과를 具備한 生活이 엇더한 것인 것을 알고있다. 吾人이 이것들에게 對하여 엇더한 學說을 세우더래

도 모든 이것들은 事實上에는 조금도 變함이 없다. 自然에 對하는 吾人の 學說이 唯物論的이거나 精神論的이거나 自然은 마찬가지로의 自然 그대로이다. 그래서 나의 學說의 目的은 感情을 滿足케 하라함이 아니다. 眞理를 敍述하는 일이다. 世上에서는 人間의 祖先이 원숭이라고 人間의 品位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彼 등이 왜 그러케 생각하는지는 哲學的으로 一定한 方向이 定해진 사람의 마음으로는 難解한 일이다. 人間의 祖先이 원숭이던지 神이던지 間에 그는 마찬가지로의 人間이다. 그와 갓티 自然은 唯物論的의 設計上에 組織되어 있는것이 發見된다더라도 그 때문에 조금도 變化할것은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唯物論은 彼 等에게 來世의 希望을 주지 안다는 理由로 苦心하고 있다. 이것도 假使缺點이라 한다면 그것은 自然의 罪일 것이요. 自然을 記述하는 哲學者의 罪는 아니겠단다. 그러나 그러타하더라도 冷靜하게 事實에 當面하는 者로서는 來世의 希望이 없다는 것은 무어 그러케 恐怖할 일은 안은듯 쉽다. 死에 對한 恐怖의 感情은 自然淘汰에 依하여 發達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死에 對한 恐怖의 感情이 업서서는 進歩하는 種族은 生存할 수가 업는 까닭이다. 死는 엇더던지 다른 모든 感情과 한 새 死에 對한 恐怖의 感情까지도 絶滅한다. 吾人 은 出生한 그날부터 部分的으로 死하면서 사는 것이다. 部分的으로 死하면서 산다는 것은 吾人の 肉體를 構成하여 있는 物質은 不斷히 變化하기 때문에 一年 乃至 二年 뒤에는 吾人은 全然上 達한 物質에서 成立하여 있다는 事實을 指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心的의 變化를 指하는 바이다. 내가 세 살 먹었을때에 가졌든 마음은 벌써 죽어 버렸다 十七歲가 된 人間은 세 살 새의 自己 自身보다도 十七歲인 다른 사람과 恰似하다. 如斯히 心은 根本的으로 變化하였다. 그리고 肉體도 全然히 달너졌다. 如斯히 小兒는 죽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업는 만콸 現實노서 업서진것이다. 聖오-가쓰친은 이러케 말하였다.

「보라, 나의 小兒 時代는 벌써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사러있다.」 그러타면 吾人은 왜 늙어서의 死를 像想하는 悲哀와 갓티 아니 그 보다도 더욱 吾人の 小兒時代가 精神的으로 死한 것을 슬퍼 하지 안을가. 모든 合理的인 標準에서 生覺해 보아도 老衰하고 耄碌한 肉體와 精神과의 喪失된 것보다도 青春을 喪失하는 것은 버덤 크게 슬플 일이다. 大體에서 青春은 歡樂을 짜르기爲하여 消費되고 老年은 苦痛을 避하기 爲하여 消費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런데 람들은 老의 到來하는 것보다도 生命의 究極의 終焉을 훨씬 더 恐怖하는 것이다. 理由는 明白하다. 自然淘汰는 如何한 代價로써 하더라도 生命을 持續케 하라는 感情을 發達케한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種族에 對

하야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自然淘汰가 小兒의 心の 滅亡을 슬허하는 感情을 發達치 안엇든 것은 種族에 對하야 不必要한 餘分인 까닭이다. 그러나 究極의 死滅이 所望이라하는 問題는 元來부터 本冉에는 問題 ㅂ기다

그래서 남은 問題는 本章의 結論을 約說하는 일이다. 感覺은 吾人의 到達할 수 있는 唯一의 根本的인 實在로서 그래서 이 實在上에 起하는 唯一의 變化는 基本的인 感覺의 聯合, 乃至는 感覺의 구루-푸의 聯合에 依하야 생기는 變化이다. 吾人의 宇宙觀念은 感覺과 그의 聯合에서 成立되였다. 感覺聯合의 最初의 產物은 物質인데 物質이라함은 普通으로 聯合하여 있는 若干의 感覺을 包含한 한 個의 概括이다. 後의 產物은 種種의 科學理論과 原則이다. 心이라 함은 神經系統에서 行하여지는 엇던 一定한 基本的인 그리고 聯合的인 作用을 指한 名稱이다. 自然 가운데서 行하여지는 一切의 作用과 事象과는 物理學과 化學의 法則을 基礎로 하는 唯物論의 設計에 꼭 드러맞는다. 換言하면 이 意味에 對한 唯物論이야 말노 眞實한 哲學이다. 宇宙 間에는 物質과 相異한 心靈物인 性質을 具備한 存在는 없다. 心과 物質과는 同義으로 眞實하기는 하나 兩者는 相異한 材料에서 成立하는 것은 아니다. 心은 神經活動이고, 物質은 聯合한 感覺이다. 換言하면 心과 物質과는 兩者가 갖티 經驗의 產物이요, 그래서 經驗의 두 개의 타입이다. ㅂ라서 또한 心과 物質과는 모다 眞實하다. 心과 物質과의 下에는 心과 物質보다도 보-덤 實在的인 것이 빚겨 잇다는 까닭은 아니다. 그러케 생각하는 것은 다만 形而上學的인 幻想이다. 그래서 吾人은 實在論과 唯物論이라는 結論에 到達한다. 그러 치만 普通으로 愛容되는 唯物論이라는 言語에는 唯心論에 對하는 反對와 함께 二元論的인 信仰을 包含하엿슴으로 吾人의 學說은 絶對 一元論이라 呼하게 되면 一層 正確할것이다.

(完了)